

강진농협 농자재백화점 개장 지역상권 위협

2011년 파머스마켓 증축 이어...철물·생활용품까지 판매 인근 상인들 청와대 등에 민원...휴업일 지정 등 대책 촉구

강진농협이 대형 농자재 마트를 개장해 지역 소상공인들이 반발하고 있다. 농자재 마트에서 농자재뿐 아니라 각종 철물 등을 판매하면서 인근의 상인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이다.

15일 강진군 등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강진농협이 강진읍 동성리에 '농자재백화점' 문을 열어 지역상인과 마찰을 빚고 있다. 농자재백화점은 40여원을 들여 대지면적 9996㎡에 연면적 2636㎡ 규모의 지상 2층 건물에 농기계 수리·판매를 겸한다.

하지만 비료와 농약, 비닐 등 인근의 중소 상인들이 판매하는 상품은 물론 전통 공구, 전기제품, 철물, 화장실용품 등 생활용품까지 판매하면서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농자재백화점이 개장한 뒤 매출이 줄어든 지역상인 30여명은 지난 5일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중복상품 판매금지 등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또 이들은 상인과 주민 1000여명의 서명을 받아 청와대, 국민고충처리위 등에 민원을 제기하고, 강진군과 강진농협에 항의 방문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상인들이 반발하고 있는 것은 강진농협이 농민과 농업 지원·육성이라는 고유 업무에서 벗어나 매출 증대에만 눈이 멀어 잇따라 대형 매장을 오픈했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 2011년 강진농협은 17억원을 들여 기존 750평에 불과했던 강진읍 파머스마켓의 규모를 1250평 증축했다. 이후 이 마트의 연간 매출액은 23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경쟁에서 밀린 주변 상가는 끝내 문을 닫아야 했다.

또 강진농협은 농자재백화점의 올 매출액 목표를 141억원으로 잡고, 연중무휴 영업방침까지 내놨다. 여기에 조합원 구매



강진읍 동성리에 들어선 강진농협 농자재백화점.

카드 적립과 우수 조합원들에게는 무이자 외상공급 혜택 등 공격적인 판매에 들어가면서 지역 상인들이 더욱 울상을 짓고 있다.

상가주인 박모(50)씨는 "농자재백화점이 취급하는 품목과 중복되는 상품을 파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경쟁에서 밀린 주변 상가는 끝내 문을 닫아야 했다."

또 강진농협은 농자재백화점의 올 매출액 목표를 141억원으로 잡고, 연중무휴 영업방침까지 내놨다. 여기에 조합원 구매

를 지정하는 등 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강진농협은 "그동안 강진 물가가 인근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비싸 해남, 장흥군 등으로 손님이 빠져나갔다"면서 "이들 판매시설을 통해 농민들에게 보다 좋은 물건을 싸게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강진농협은 군동농협, 성전농협 등 3곳이 합쳐진 합병 농협으로, 조합원 5000여명에 총자산 2711억원이다.

/강진=남철희기자 chou@kwangju.co.kr

장흥군 목재산업 클러스터 조성 시동

핵심시설 지원센터 이달 착공...250억 들여 2016년 완공

장흥군이 '목재산업 클러스터' 조성 시동을 걸었다.

장흥군은 "'목재산업 클러스터'의 중심 시설인 목재산업 지원센터(조감도)를 이달에 착공한다"고 15일 밝혔다.

장흥군은 국내의 열약한 목재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산림 육성에서 벌채, 제재, 1차 가공을 통한 고부가가치 제품 생산, 수요자의 기호에 맞춘 판매 시설까지 한곳에서 목재관련 모든 산업을 융·복합하는 '목재산업 클러스터'를 추진하고 있다.

'목재산업 클러스터'는 올해부터 오는 2029년까지 16년간 3단계에 걸쳐 조성될 계획이다. 국비와 민간자본 8000억원을 포함해 총사업비 9991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1단계는 '기초 인프라 구축'으로 목재산업 지원센터와 장흥 바이오 식품 산업단지 및 연계한 제품 생산 및 유통산업단지를 조성한다. 또 목재산업의 진흥을 위한 목재산업 박람회장을 연다.

2단계는 '목재산업 확산단계'로서 박물관과 교육원, 산업공동 기술개발 진흥사업이 추진된다.



3단계는 '미래산업 창출단계'로서 바이오 에너지와 목재산업 테마파크를 조성하며, 목포와 광양항을 이용한 목재산업 전용항을 조성하는 것을 최종 목표로 잡았다.

군은 올해부터 2016년까지 3년간 국비를 포함한 250억원을 투입해 목재산업 지원센터를 조성하게 된다.

지원센터는 목재관련 공예·건축·생활용품 등을 연구 개발하는 창업보육을 통한 '인큐베이터' 역할과 디자인 및 제품 개발, 행정지원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장흥군 관계자는 "지원센터는 향후 목재산업 클러스터 조성의 중심이 되는 시설이며, 장흥군의 신성장 동력의 시초로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장흥=김용기기자 중부취재본부장

전남 농업박물관 31일

모내기 시연·체험행사

전남도 농업박물관(관장 김우성)은 오는 31일 오전 10시 영암군 삼호읍 영산호 관광지내 쌀 농업공원 친환경 생태학습장에서 전통 방식에 의한 모내기 시연 및 체험 행사를 개최한다.

농업박물관이 매년 실시하는 이번 체험 행사에서 참가자들은 옛 방식에 따라 만들어 놓은 못자리에서 자란 모를 직접 손으로 꺼내어 못줄을 띄워가면서 전통 방식대로 모를 심게 된다.

농업박물관은 이날 행사에 앞서 오전 10시까지 참가자 등록을 마치고, 모내기 유래와 방법 등 행사 전반에 대해 간단히 설명한 데 이어 남도농촌로 시연을 펼칠 예정이다.

이후 행사 참가자들은 못자리에서 자란 모를 손으로 직접 꺼 지푸라기를 이용해 '모춤'을 만들고 이를 지게에 쳐 썰레질이 끝난 논으로 옮긴 다음 못줄을 띄워가며 모를 한 줄 한 줄 심게 된다.

참가 희망자는 28일까지 전화(061-462-2796~9)로 신청하면 된다. 행사 참가 인원은 선착순 300명(체험 참가비 개인당 5000원)이며, 불장화와 긴 양말, 여벌 옷, 모자, 수건 등을 준비해야 한다.

/윤현석기자 chad@kwangju.co.kr



화목가마 강진청자 본별구이

강진 청자박물관 도공들이 15일 화목가마에서 소나무 장작으로 불을 지피며 청자 본별구이를 하고 있다. 강진군은 7월 26일부터 8월 3일까지 강진군 대구면 강진 청자박물관 일원에서 '강진 청자축제'를 개최한다.

<강진군 제공>

영암 희망복지 지원단 위기가정 심장질환 영아 수술 도움

미국으로 태어나 심장질환을 앓고 있는 두 살배기 아이(영암군 영암읍) 엄마의 얼굴에 오랜만에 웃음꽃이 활짝 피었다.

어린이를 수술시켜야 하는 고통도 가슴 아픈 일이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가

정형편에 수술비 부담을 안고 살아야 했는데 영암군 희망복지 지원단에서 민간자원을 연계해 줌으로써 수술비 부담을 덜게 된 것이다.

15일 영암군 희망복지지원단은 "수술

비가 없어 생명을 위협받고 있는 가정이나 가정의 실직 등으로 가족들이 생계유기에 처해 있는 위기가정을 돕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영암군 희망복지 지원단은 이러한 성과들을 바탕으로 지난해 보건복지부 주관 '지역 사회복지계획 시행결과 평가'에서 대상을 받았다.

/영암=대성수기자 dss@

강진군 패류종묘 생산 전진기지 박차

참꼬막 종묘 50kg 살포

강진군이 종묘 생산 전진기지로 거듭나고 있다. 15일 강진군은 "어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추진했던 수산패류 매카 조성사업이 가시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군은 지난해 9월 꼬막 인공 종묘 생산업체인 다산 해양종묘에서 배분받은 4mm 크기의 참꼬막 종묘 50kg을 청정 갯벌지역인 도암면 만덕지구 3ha에 나눠 살포했다.

이들 종묘는 지난 2일 확인한 결과 1차 선별작업을 통해 1cm, 300kg 상당 자란 것으로 밝혀져 앞으로 귀추가 주목된다.

참꼬막 종묘는 불순물과 따개비를 제거하고 밀식되지 않게 골고루 중간 종묘장에 재살포해 5개월 가량 2cm까지 더 성장시켜 강진만과 전남연안의 패류양식 어장에 공급하게 된다.

김영기 군 해양산림과장은 "인근 시·군과 타지역 어업인에게까지 우수한 패류종묘를 공급할 수 있도록 패류 살포사업과 육성장, 모패장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강진군은 지난 2012년부터 해양환경의 변화와 어장 노후화로 인한 패류



강진군 도암면 만덕리 해상의 참꼬막 종묘선별작업.

감소에 대처하기 위해 2억원을 투자해 중간 육성장 4개소와 자연산란을 위한 모패장 5개소를 조성했다. 올해도 4개소에 대해 1억2000만원을 추가 투자해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강진=남철희기자 chou@



착한 음식을 만드는 정성 채널A의 마음입니다.

'이영돈 PD의 먹거리X파일'은 불량 먹거리를 고발하고 좋은 재료로 정성을 다하는 '착한식당'을 찾아내고 있습니다. 정직한 노력으로 원칙을 지키는 식당 주인의 마음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들고 싶은 채널A의 마음입니다.

꿈을 담은 캔버스 채널A

채널A <먹거리X파일> 이영돈 PD와 착한식당 <뽕드림>의 이효용 대표